

새누리 계파갈등 ... 총선 공천싸움 시작?

靑·친박계,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흔들기 노골화

비박계, 당청협의 회의론 제기 청와대 강력 비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흔들기를 노골화 하자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 간 갈등도 표면화 하면서 여권 내분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하는 분위기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지만 여러 정황상 여권 내 주류와 비주류 간 헤게모니 정립전의 시작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와 친박계로서는 오는 8월에 집권 반환점을 도는 만큼 유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면 이번을 계기로 비박계 주도의 당 운영에 변

화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친박계 의원들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비주류 대표 체제를 흔들며 공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의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돌리며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지 하루 만인 3일 비박계 중진들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나와 일제히 반격을 가하며 유 원내대표를 잡았다. 또 비주류 중진들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경계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가 악화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당청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당청협의 중단 시사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청협의가 모여 메르스 확산 방지, 국민 불안 해소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며 “싸우다가도 국가의 중대 사태가 터지면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부터 해결하자고 해야지 메르스 해결은 뒷전이고 당청간에 내분이나 일으키고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가적 역량을 다 모아도 부족한 시점에 지금 당청간 갈등하는 모습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정치인 모두 책임이 왜 유 대표 책임이나 되겠고 싶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날 친박의원 모임에 대해서도 “계파갈등을 부추기려 의도한 바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대 특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만나다가도 일이 생기면 만나서 상의해서 협조하는 게 당정청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새 잊혀진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14 전당대회 다음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야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와 제주 사이에서, 폭력에 대하여

신형철 칼럼



필자가 재직 중인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1년에 한 번 ‘장작 기행’이라는 이름의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의 답사 지역을 제주도로 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역점을 둔 것은 ‘4·3사건’의 현장으로 학생들을 안내해 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20대의 나이를 통과한 분들이 90년대의 초중반에 낳은 자녀들일 것이다. 이들이 80년 광주를 모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더 깊어질 여지는 있지 않을까.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5·18’을 ‘4·3’으로부터의 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5월 20일 오후에 ‘제주 4·3 평화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작 학생들보다 더 흥분한 것은 나왔다. 꼼꼼하게 설계된 기념관과 웅장한 추모 시설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역사는 바로잡힌다는 당당한 증거인 듯싶어 나는 몰래 전율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1948년 4월 3일에 봉기를 주도한 이들은 수백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과 연루돼 있다고 할 수도 없는 평범한 민간인들이 ‘토벌’의 대상이 되어 3만 가까이 희생됐으니, 그 유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 후 65년 남짓, 이제 제주에는 평화의 성지가 됐다.

제주도 떠나기 전 이미 학생들에게 현기영 선생의 소설 ‘순이 삼촌’(1978)을 권해둔 터였는데, 4·3의 진실을 용기 있게 공론화한 이 기념비적인 소설을, 나도 제주의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재독했다. 이 소설에서 ‘전지불’이라는 단어가 새삼 눈길을 머문 것은 기행의 떠나기 직전 강의에서 마침 이 청춘의 ‘소문의 벽’(1971)을 토론했기 때문이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던 이들이 눈앞에 들어섰다는 그 불에 대해 말해주는 또 한 편의 소설. 현기영의 제주에서 자행된 전지불의

만행은 전쟁 발발 이후 이청춘의 장흥에서도 행해졌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선 ‘소문의 벽’ 쪽이 더 자세하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지불을 얼굴에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지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무서운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린 전지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소문의 벽’)

이 전지불이 끔찍한 것은 50프로의 확률로 오답을 맞았을 경우에 가해질 폭력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폭력은 답안 채점 이후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불을 들이치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진실은 진실을 말하려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체로 인간 개개인의 진실이라는 것은 도무지 한두 마디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일 때가 많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은, 이렇게 시작되는 긴 이야기의 끝에서야, 겨우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전지불을 들고 있는 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생각이 없으리라.

자신의 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규정되는 모든 존재들은 억울하다. 이 억울함이 벌써 폭력의 결과다. ‘폭력’의 외연은 가급적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정의를 시도해 본다. ‘폭력’이란? 어떤 사람/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상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단편적인 정보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나는 느낀다. 인터넷 뉴스의 맛글에, 어떤 트위터에, 각종 소문 속에서도 그들은 있다. 문학이 귀한 것은 가장 끝까지 듣고 가장 나중에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문학은 4·3과 6·25와 5·18의 반복을 겨우 저지한다. 제주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그것은 나의 확신이라기보다는 다짐이었다.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호남선 KTX 이용객

하루 1400명 서서 간다

최동호 광주대 교수 주장

하루 평균 1400명 가까운 호남선 KTX 이용객이 좌석 없이 서울을 오가며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3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선 KTX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코레일이 승객 수요를 잘못 예측해 호남선 KTX 입석 승객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호남선 KTX 하루평균 입석 승객은 지난 4월 2일 호남선 KTX 개통을 전후해 3월 315명, 4월 908명, 5월 136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며 운행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호남선 KTX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에서도 경부선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 기준 운행횟수를 살펴보면 동대구~서울 상행 횟수는 82회지만, 광주~용산은 24회에 불과했다.

배차 간격도 동대구~서울은 14분, 광주~용산은 43분이었다. 반면 요금은 동대구~서울이 km당 145원이지만 광주~용산은 km당 154원으로, 호남선 KTX 승객들은 비용을 더 지급하면서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회로 나선 함성훈 코레일 광주본부 영업처장은 “요금 적용 기준은 똑같지만 경부선은 구형 모델이 많아 요금이 조금 낮다”며 “열차증편은 수서발 KTX가 개통돼야 사실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시장, U대회 거리 홍보

윤장현(광주시장)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김해수 광주지검 검사장 등이 3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광장에서 열린 교통질서홍보 캠페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회 홍보와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4~5일 설계심의

5개 컨소시엄 수주경쟁 치열

전남도, 심의위원 자격 개선

전남도가 4일과 5일 2679억원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1·2공구 단기(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 자격과 선정 방법 등을 대폭 개선한 가운데 어떤 결과

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3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단기입찰 설계심의를 4일 1공구, 5일 2공구에 대해 실시하고 2공구 심의가 끝난 뒤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간 10.83km 구간을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38억원 규모다. 이 중 공사비는 1공구 1675억원, 2공구 1022억원 등 2697억원이다.

1, 2공구로 분할해 발주하는 이번 입찰에는 1공구(5.4km)에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2공구(5.4km)에 금호건설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전남도 설계심의회분과위는 5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 도서를 대상으로 항목별 차등평가와 위원별 평가, 총점차등평가 등 3가지 차등평가를 적용해 기술경쟁 위주로 평가한다.

1공구는 설계평가가 65% 반영되고 2공구는 55% 반영된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미 조달청이 실시한 가격입찰 점수와 합산해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승,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호텔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당신의 광경! 절음의 광경!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 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平日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맥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